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 선 희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nalysis on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during Adaptation to Korea: Focus Group Interview

Lee, Sun H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imcheon University, Gim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during adaptation to Korea. **Methods:**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11 to March 2012 from 10 Vietnamese women of 2 focus groups who have experienced pregnancy or childbirth in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significant themes. **Results:** This study was analyzed into five major themes: 'difficulty of adaptation to other cultures', 'difficulty and joy of pregnancy', 'effort to live as a Korean', 'not-so-difficult childbirth', and 'unbearable postpartum conditions.' **Conclusion:** It is meaningful of this study to reveal this: for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the support for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postpartum care is a priority rather than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the program about pregnancy and childbirth.

Key Words: Immigrant, Childbirth, Experience, Focus group,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 내의 외국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율이 19.86%로 OECD 국가들 중에 최고를 보이고 있다(Euro Journal, 2011).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 2007년 총 110,362명에서 2010년 141,654명, 2015년 151,60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2015년 남성결혼이민자 수는 23,272명,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128,336명으로 한국남성들과의 결

혼을 위해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84.6%로 두드러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은 2015년 중국 38.8%(58,788명), 베트남 26.9%(40,847명)로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결혼이민자 58,788명은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을 합한 수치로 이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베트남이 단연 1위이다(Statistics Korea, 2015).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은 입국 후 1년 이내에 첫 아이를 임신하여(83.7%) 첫 아이 임신까지의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09; Kim, Hwang, Jang, Yun, & Kang, 2008).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됨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결혼이

주요어: 이주여성, 출산, 경험, 포커스 그룹,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Lee, Sun He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imcheon University, 214 Daehang-ro, Gimcheon, 740-704, Korea.
 Tel: +82-54-420-4252, Fax: +82-54-420-4492, E-mail: lsh12@gimcheon.ac.kr

투고일: 2017년 2월 27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7년 4월 25일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알아보고자 포커스 그룹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연구는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그룹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둔 주제에 대해 집중된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민감한 주제나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만들거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Kim et al., 2000).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편의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에 이주하여 첫 번째 임신 중이거나 첫 아기를 출산한지 1년 미만의 여성 중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자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이주 초기 대상자들로부터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생생한 임신, 출산 관련 경험을 얻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G시의 M병원 간호부에 의뢰하여 동의를 얻은 후 M병원 관계자가 M병원에서 첫 임신으로 산전관리를 받고 있거나 첫 아기를 출산한지 1년 미만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총 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출산여성 3명과 임신여성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1차 포커스 그룹 대상자 중 한명이 다른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을 소개하여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된 자 중에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처음 임신한 여성 2명과 출산한지 1년 미만인 여성 2명으로 총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구성은 6내지 10명 내외가 적당 (Kim et al., 2000)하나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에 통역원에 의해 토의를 진행하다보니 다수 참여자가 참여하는 토의에 어려움이 있어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에는 4명으로 조정하였다.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고 질적학회 및 특강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박사학위논문에도 참여한다

주여성들은 임신과 출산과정 동안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생리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임신과 출산에 따른 교육과 정보 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한다(Cunning, Yu, & Kim, 2014; Kim, 2009; Lim, 2011). 한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축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Cunning et al., 2014; Kim, 2012; Kim, 2009; Lim, 2011). 그러나 이주 초기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 가정 부부는 결혼생활만족도가 낮고(Kim, 2012), 사회적응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 기혼여성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Kim, 2008).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중국과 일본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우울증상을 더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 Kim, 2008).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는 대부분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아 임신, 출산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은 산전관리에 관한 정보부족과 음식문화 차이로 인해 영양섭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Jeong, 2011; Kim et al., 2008). 이는 국민건강의 척도가 되는 모자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생식건강, 출산형태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08; Seol et al., 2005). 관계부처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사전 계획과 준비 없이 이주 후 1년 이내 첫 임신을 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절실히 필요한 임신과 출산 관련된 체계화된 교육이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에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확인하고 그들의 임신과 출산 시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 인지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커스 그룹 방법은 문화적 차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를 조사하기에 적합하며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2개의 포커스 그룹은 10회의 개별 인터뷰에 해당하는 양을 창출할 수 있기에(Kim, Kim, Lee, & Lee, 2000) 본 연구를 위해 채택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있다. 또한 질적 연구와 관련된 서적을 숙독하였으며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은 질적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산과분야에서 간호조산사로서 다문화간호 경험을 포함하여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문화 대상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2012년 3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두 그룹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한지 평균 1년 4개월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로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통역을 통해 진행되었다. 통역자는 베트남인으로서 베트남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통역당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한국어 능력이 거의 한국 사람과 유사할 정도로 능통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G시의 M병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M병원의 출산교육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의 소요시간은 82분이었다.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소개해준 여성과 통역자를 통해서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한 명의 출산이주여성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토의 소요시간은 102분이었다. 두 그룹의 인터뷰 후에 2번째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출산이주여성의 남편과 시댁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통역자가 참여자에게 베트남어를 이용하여 메일로 확인해주거나 낮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통역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면담 대상자에게 전화로 질의하고 대답하는 것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그룹 토의 직후 연구 보조자가 녹음파일을 그대로 필사하였고, 연구자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토의 중 중요 사항이나 특이 사항은 메모노트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동의서’에 참여자들이 베트남어로 작성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기록은 통역자가 토의 직후 통역한 내용을 녹음하였고, 함께 필사하였다.

5. 연구절차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원활한 토의를 위해 연구자는 1차 포커스 그룹 참여자나 남편을 통해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면

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였으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2차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통역자를 통해 소개해준 베트남 여성에게 전달하였으며 다른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자는 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베트남어로 번역된 서면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방법은 녹음으로 진행되며 녹음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성 보장과 가족에게 비밀이 유지되고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으며 연구참여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설명하면 통역자가 다시 베트남어로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일반적 특성 및 임신과 출산 관련 구조화된 문항과 더불어 개방형 질문지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준비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Krueger와 Casey (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과 과정을 적용하여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의 다섯 가지 종류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도입질문: “차례로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임신 중인지,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해요”
- 소개질문: “한국에 이주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다?”
- 전환질문: “한국 적응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다?”
- 주요질문: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마무리질문: “임신과 출산경험에 대해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6.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그룹 토의 직후 필사된 내용과 메모노트를 참고하여 Morse와 field (1995)의 내용분석방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으로 수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의 의미, 의도, 중요성을 탐색하기 위해 녹음

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필사하였다. 이어 연구자는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에 대한 의미, 가치인식, 태도, 경험 등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 하부범주, 범주, 주제로 자료를 도출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수의 질적 연구에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교차 확인하는 과정 및 수차례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전체 합의하여 하부범주와 범주, 주제로 통합하였고, 자료의 포화 정도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3.5세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15개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평균 12.4개월이었다. 교육정도는 12년(고등학교 졸업자)이 7명, 15년(대학졸업)이 3명이었으며 종교는 4명이 불교, 4명이 무교, 2명이 가톨릭이었다. 대상자 모두 한국에서의 직업은 주부였으며 현재 임신하고 있는 대상자는 5명,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5명이었다. 배우자의 평균 나이는 31.8세,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8명, 대학졸업이 2명이었다. 배우자는 9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1명은 무직이었고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높음이 4명, 중간정도 3명, 낮음이 3명이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는 남편 외에 시어머니가 5

명, 시누이가 1명, 남편과 둘이 사는 경우 2명, 남편과 첫 아이와 함께 사는 경우가 5명이었다.

2.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

본 연구를 통해 5개의 주제, 11개의 범주 그리고 29개의 하부범주로 분류되었다. 5개의 주제는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의 노력], [힘들지 않은 출산], [감당하기 힘든 산후 여건]이었다.

각 영역별 하부범주와 범주, 주제는 Table 2와 같다.

1) 주제 1: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한국 적응과정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고, 「한국음식 적응 힘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사일의 힘들」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여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1) 범주 1: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이주 후 가장 친밀하게 맞이하게 되는 가족관계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렵고, 남편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여 한국 적응과정에서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 Vietnamese Women with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n Korea

Variables	Characteristics	1st focus group						2nd focus group			
		1	2	3	4	5	6	1	2	3	4
Participants	Age (year)	25	28	23	21	23	26	21	20	23	25
	Period of marage (month)	13	11	32	17	8	20	12	13	30	24
	Stay period of Korea (month)	10	8	28	12	4	16	16	12	24	19
	Period of education (year)	15	12	12	12	12	12	12	12	15	15
	Religion	B	B	C	B	None	None	B	C	None	None
	Occupation	H	H	H	H	H	H	H	H	H	H
	Now pregnancy	Yes	Yes	None	None	Yes	None	Yes	Yes	None	None
	Number of delivery	0	0	1	1	0	1	0	0	1	1
Spouse	Age (year)	35	40	40	42	40	38	35	36	38	38
	Education level	U	H	H	H	H	H	H	U	H	H
	Occupation	Non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Economic status of family		Low	Low	Low	Middle	Middle	High	Middle	High	High	High
Family living together (except husband)		M	M	M, S, Child	M, Child	-	Child	-	M	Child	Child

B=Buddhism; C=Catholic; H=Housewife; U=University; H=High school; M=Mother-in-law; S=Sister-on-law.

Table 2.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n Marriage Immigrant Vietnamese Women

Subcategories	Categories	Subject
· Difficulty of relationship with mother-in-law · Husband who does not understand me · Loneliness in the family	Difficulty of adaptation in the family	Difficulty of adaptation to other cultures
· Struggle in adapting to Korean food · Difficulty of communication · Hardship of housework	Difficulty of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 Difficulty of adaptation to pregnancy · Concern about differences in pregnancy management · Worried about which country's way of pregnancy management to follow	Conflict over cultural differences in pregnancy	Difficulty and joy of pregnancy
· Receiving attention of family by pregnancy · Becoming a family by pregnancy	Joy of pregnancy	
· Hoping to learn Korean · Wanting to cook Korean food · Need of education for pregnant woman in Vietnamese	Need of learning Korean culture	Effort to live as a Korean
· Wanting to eat good food which Korean pregnant women have · Wanting to know how Korean pregnant women take care of themselves · Trying to give birth according to Korean birth style	Wanting to follow Korean pregnant women	
· Curiosity about how to bring up children · Wanting information about bringing up children in Korean way	Hoping to bring up children in Korean way	
· Naturalness of giving birth · Free delivery culture of Vietnam · Nothing particular in delivery	Naturalness of childbirth	Not-so-difficult childbirth
· Assistance of husband · Healthcare provider's help using body language	Being a help by supporting me	
· Burden of caring for a baby alone · Burden of solitary housework	Burden of solitariness	Unbearable postpartum conditions
· Need of baby-sitter's help · Need of housekeeping assistance · Wanting Vietnamese postpartum care	Needing support for postpartum care	

-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

같이 남편 살아도 시어머니 있어서 힘들어요. 시어머니 있어요. 남편, 사주세요. 시어머니 화나해(1차 참여자 2)

-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

남편 분한테 얘기했는데 남편 분은 좀 참으라고, 시어머니가 나이 좀 드시니까 참으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다고, 있다구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들다구.(1차 참여자 1)(통역)

남편 안 사줘요. - 1차 참여자 4 / 첫 출발했을 때는, 그되게, 베트남 음식 되게 먹고 싶었대요(1차 참여자 4)(통역).

- 가족 안에서 외로움

시어머니랑 남편이 둘이서만 웃고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그냥 앉아 있기만 한 대요. 그래서 좀 외롭기도 하고...(1차 참여자 5)(통역)

- (2) 범주 2: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이주 후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 한국어를 몰라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물론 외출도 혼자 할 수 없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르는 가사일을 도맡아 하게 되어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 한국음식 적응 힘들

처음부터 좀 메워, 이게...먹기 힘들어요. 계속 먹어요. 김장김치, 찌개, 계속 많이, 많이 먹어요. - 1차 참여자 3

한국 음식 중에 닭도리탕 있잖아요. 그거 먹고 뭐, 토 토 할뻔 했대요. 그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2차 참여자 2)(통역)

- 의사소통의 어려움

여긴 시어머니 때문에. 한국말 몰라, 잘 모르니까 어려
워요.(1차 참여자 4)

한국 말 몰라, 몰라서 언니(함께 온 시누이)가 함께
가...나 못가, 혼자... 언니 시간 없어...나 못 나가(1차 참
여자 3)

• 가사 일의 힘겨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된대요. 다섯시 반쯤에 일어
나서(히이~누군가 놀라는 소리) 식사도 준비해야 되
고...(1차 참여자 6)(통역)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 못 만들어요. 그거는 본
인한테 가장 어려운 거 같대요.(1차 참여자 5)(통역)

2) 주제 2: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

‘임신적응의 힘들’, ‘임신관리에 대한 차이로 걱정함’, ‘어느
나라 임신관리방법을 따라야 할지 고민함’의 3개의 하부범주
가 모여 「임신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함」으로 범주화하였고,
‘임신으로 가족들의 관심을 받음’과 ‘임신으로 가족이 됨’의 2
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임신의 기쁨」으로 범주화하여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3) 범주 3: 임신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도 하기 전에 임신
을 하게 되어 임신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으며 한국과 베트남의
임신관리에는 차이가 있어 걱정되었으며 한국식으로 임부관
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베트남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되기도 하여 임신관리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경
험하였다.

• 임신적응의 힘들

임신이에요!, 하나도 못 먹어요. 김치랑... - 1차 참여자 3

한국에 적응하기 전에, 네, 임신하게 되니까 힘든 것들
도 많이 있었는데...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임신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대요. 많이 토했고...(1차 참여자 5)(통역)

• 임신관리에 대한 차이로 걱정함

검사 있어요. 주사 없어요. 오줌도... 피도 검사하고...
베트남과 달라... 임신 처음부터도 많이, 걱정 많이 했어
요.(1차 참여자 3)

• 어느 나라 임신관리방법을 따라야 할지 고민함

베트남에서 거위 알을 먹어요. 좀 크잖아요. 예. 그거를
먹으면은 애가, 한 명이 그 임신할 때는 3개. 거위. 거위 3
개 먹으면은 애가 푹푹하고, 그, 9개월 내에 3개 먹는대요.

거위 알, 먹어도 되는지 고민된대요.(2차 참여자 1)(통역)
우린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임신할 때 뭘
먹고, 음...뭘 하는지 그거대로 해야 하는 지...잘 모르겠대
요.(1차 참여자 2)(통역)

(4) 범주 4: 임신으로 기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임신으로 가족들의 관심을 받으며
가족의 일원이 됨을 느껴 임신으로 기쁨을 경험하였다.

• 임신으로 가족들의 관심을 받음

시어머니, 남편 얘기를 좋아요. 그제, 임신 이제 몸을 조
심해 해요.(1차 참여자 4)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거 먹으라고 하고...남편도 잘해
주니까...마음이 편안하고...(1차 참여자 6)(통역)

• 임신으로 가족이 됨

시어머니,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 며늘아가.. 아기가
졌다고 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다 느꼈대요.(1
차 참여자 5)(통역)

3) 주제 3: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의 노력

‘한국어 배움 희망함’, ‘한국음식 만들기 원함’, ‘베트남어로
된 임신부교육의 요구’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문화 배
움의 요구」로 범주화하였고, ‘한국임부가 먹는 좋은 음식 먹고
싶음’, ‘한국임부의 관리법 알기 원함’, ‘한국식 출산에 따라 분
만하려고 함’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 임신부 따르고
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육아법에 대해 궁금함’과 ‘한
국식 자녀 교육법 알기 원함’의 2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한국
식 자녀 기르기 희망함」으로 범주화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
기의 노력]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5) 범주 5: 한국문화 배움의 요구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문화에 적응하
기를 원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지원해 주
기를 희망하였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을 알기 원하였다. 또한 한국어 임신부 교육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베트남어로 된 임신부 교육을 원하였다.

• 한국에 배움 희망함

한국 정부가 베트남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들한테
그 한국 거 뭐, 한국 문화...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고...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언어라고, 한국어 빨리 배우고 싶대

요.(1차 참여자 1)(통역)

- 한국음식 만들기 원함

한국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고... 남편, 시어머니 만들어 줘야 하고... 잘 알려주는 사람 없어서...(1차 참여자 2)(통역)

- 베트남어로 된 임신부 교육의 요구

한국 책, 이게, 임신 어떻게 조심해요, 음식도 어떻게 먹어요. 임신, 출산이, 어떻게, 애기 어떻게 키워요. 잘 몰라요... 나 좀 몰라요.(1차 참여자 3)

주로 베트남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임신 중일 때는 뭘 먹으면 좋겠다 그러한 글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여기는 한국이니까... 베트남어로 알려줘야 한 대요.(2차 참여자 1)(통역)

(6) 범주 6: 한국 임신부 따르고 싶음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한국식으로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이나 임신 시 관리법 및 한국에서의 출산에 따라 분만하기를 원하였다.

- 한국임부가 먹는 좋은 음식 먹고 싶음

한국 사람들이 임신할 때 먹는 좋은 거, 뭘 먹는지 그거는 알, 알 수 있으면은 자기두 쉽게 할 수 있대요.(1차 참여자 2)(통역)

- 한국임부의 관리법 알기 원함

한국에서는 임신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거 그런 거 알고 싶다고 하네요.(1차 참여자 1)(통역)

- 한국식 출산에 따라 분만하려고 함

출산할 때는 어떻게 될 지는, 궁금하고, 예. 지금은 아직 안 낳았으니까, 그 임신하고 출산 과정에 있어서 정보들을, 한국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어차피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니까...(1차 참여자 2)(통역)

베트남, 남편 여기 들어와 안 돼요. 혼자서... 여기 남편 있어요. 여기 아기 어떻게 낳아요?(1차 참여자 6)

(7) 범주 7: 한국식 자녀 기르기 희망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한국식으로 자녀를 길러야 하므로 한국식 육아법에 대해 궁금해 하였으며 한국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기를 바라였다.

- 육아법에 대해 궁금함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교육을 받고 싶대

요.(1차 참여자 1)(통역)

나중에 육아? 어떻게 애를 씻는, 애를 씻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다 그러한 거 들어가는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1차 참여자 2)(통역)

- 한국식 자녀 교육법 알기 원함

나중에 그 아이들, 유치원, 그, 유아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교육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게 다 궁금하대요.(2차 참여자 1)(통역)

4) 주제 4: 힘들지 않은 출산

‘아기 낳는 것은 당연한 것임’, ‘베트남의 자유로운 출산문화’, ‘출산은 다르지 않음’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임’으로 범주화하였고, ‘남편이 나를 대신하여 줌’과 ‘바디랭귀지로 의료인이 도와줌’의 2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나를 도와주어 힘이 됨’으로 범주화하여 [힘들지 않은 출산]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8) 범주 8: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임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아기 낳는 것은 여성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베트남에서의 출산문화는 산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먹을 수 있어서 출산은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출산 자체는 어느 나라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 아기 낳는 것은 당연한 것임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 두려움은 없대요.(1차 참여자 5)(통역)

- 베트남의 자유로운 출산문화

베트남에서는 진통 중에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요.(2차 참여자 2)

출산할 때 필요한 게, 아까처럼 그냥 왔다갔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베트남에서는 움직여요.(1차 참여자 6)(통역)

- 출산은 다르지 않음

베트남이나 여기 한국이나 출산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고 하네요. 아기 낳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대요.(1차 참여자 2)(통역)

(9) 범주 9: 나를 도와주어 힘이 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분만 시 남편이 나를 대신하여 의료

인과 의사소통해주고 의료인도 바디랭귀지를 통해 도와주어서 힘이 됨을 경험하였다.

- 남편이 나를 대신하여 줌

그 중요한 거는 다, 의사 선생님이 다 남편분한테 얘기하고 남편은 또 다시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거의 다 남편이 해주니까, 옆에 있어주니까... 안심이 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다 해주니까... 아무 문제 없다가 얘기해요.(1차 참여자 6)(통역)

애 아빠 있어서 그 병원 갈 때나 그, 저기, 낳을 때까지는 다 남편 있으니까, 남편이, 예, 그렇게 전달해서... 음, 좀, 어려운 게 없고, 걱정이 되는 게 없는 거 같대요.(1차 참여자 4)(통역)

- 의료인이 바디랭귀지를 통해 도와줌

남편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원장님도 많이 도와줬어요(1차 참여자 3) /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힘이 나서 아기 쉽게 낳았고...(1차 참여자 3)(통역)

아기 낳을 때, 어렵지 않아요.(1차 참여자 6) / 병원에 선 되게 많이 도와줬대요. 이렇게(몸으로 힘주는 시늉을 함) 힘 주라고 하나 둘 셋하고...(1차 참여자 6)(통역)

5) 주제 5: 감당하기 힘든 산후 여건

‘아기 돌보기의 부담감’과 ‘혼자 감당하는 가사일의 부담감’의 2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혼자 감당하기 버거움」으로 범주화하였고, ‘아기 돌보기의 도움 필요함’, ‘가사일 도움 필요함’, ‘베트남식 산후조리 원함’의 3개의 하부범주가 모여 「산후조리 위한 지원 필요함」으로 범주화하여 [감당하기 힘든 산후 여건]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10) 범주 10: 혼자 감당하기 버거움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출산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는 산후조리 할 여력도 없이 아기돌보기와 가사일 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움을 경험하였다.

- 아기돌보기의 부담감

아무도 안 도와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첫 애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애를 돌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애를 어떻게 씻어줘야 되는지? 그 빨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한테는 무엇을 먹여야 되는 지 잘 몰라서 힘들었대요.(1차 참여자 4)(통역)

- 혼자 감당하는 가사일의 부담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출산한 지 얼마 안됐을 때 나가야 된대요. 장도 봐야 된대요.(연구자: 으음) 장은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모든 걸 해야 된대요.이 친구는 너무 고생스럽고. 도와줬으면...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했대요.(1차 참여자 6)(통역)

출산한 지 얼마 안됐을 때, 1주일 정도? 그 때에는 직접 요릴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대요... 시어머니는 좀, 몸이 약해서서(연구자: 어) 그래서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된대요.(2차 참여자 2)(통역)

(11) 범주11: 산후조리 위한 지원 필요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은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아기 돌보기와 가사 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베트남식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 아기 돌보기의 도움 필요함

남편분이 하루종일 일하러 나갔다가와서 그 저녁에는 그 애를 돌봐주는 걸 좀 도와줬음 좋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 보는 거 도와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1차 참여자 4)(통역)

- 가사일의 도움 필요함

남편이 집안일을, 집안일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1차 참여자 2)(통역)

시부모님 안 계셔서... 그... 그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리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1차 참여자 5)(통역)

- 베트남식 산후조리 원함

베트남에서는 출산한 다음에는 생선 먹, 안 먹어요. 출산한 다음에는 생선하고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는 먹으면은 배 안에, 애기를 낳은 다음에는 뭔가 줄어든대요.(1차 참여자 6)(통역)

신기한 거 있대요. 그, 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한국 여성들이 그냥 일주일 정도 안 됐을 때 밖에 나가... 기도하고... 베트남에서는 한 달 정도. 어, 샤워, 샤워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꼭 그, 씻어야 될 경우에는... 따뜻한... 바람도 맞으면 안 되고... 양말도 신어야 되고 추위도 막아야 되고... 계속 3개월이나 안나간대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2차 참여자 2)(통역)

논 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이 이주 후 1년 이내 첫 임신을 하게 되어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분석하고자 결혼 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에서 5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로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이었다. 이에 대한 범주인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독특한 가족문화와 관계들로 인해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Cunning et al., 2014; Kim, 2012; Lim, 2011)가 뒷받침 해주듯이 본 연구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의 가장장적 가족문화와 생활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받으며 시작하는 결혼 생활(Nam & Oh, 2013)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남편에게 호소해도 참으라고만 하고,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도 사 주지 않아 믿고 의지할 사람인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으며 한국어를 이해 할 수가 없어 가족 내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Cunning 등(2014)의 연구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남편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 서운함을 나타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관계는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여주는 기제가 되므로(Yang & Lee, 2011) 생애 최대 과업인 임신과 출산을 겪는 시기에 가정 내에서 한국인 가족들과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Nam & Oh, 2013). 두 번째 범주인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에서는 한국음식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낯 설은 한국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가사 일에 힘겨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의사소통의 어려움(Nam & Oh, 2013) 뿐만 아니라 김치, 마늘 냄새 등 한국음식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Chung, 2011) 다문화 여성들이 극심한 가사노동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Cunning et al., 2014; Lim, 2011)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사회적응도에서 베트남 이주여성(46.1%)들은 중국(19.6%)과 필리핀(28.2%)에 비해 낮은 수치이므로(Choi, 2015) 사회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로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을 경험하였는데, 범주로는 「임신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함」과 「임신으로 기쁨」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적응하기도 전

에 임신하여 임신적응이 힘들었으며 베트남과 한국의 임신관리에 대한 차이로 갈등하여 어느 나라 임신관리방법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 이주 후 첫 임신까지의 기간이 짧아 한국 적응 전 임신으로 인해 생리적 어려움을 경험(Kim, 2009; Lim, 2011)하며 임신에 대한 지식 부족, 정보획득의 부재로 모성 및 아기에게 미치게 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Kim, 2008; Kim et al., 2012). 그러므로 이주 후 짧은 시간 내에 임신하게 되는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을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로 된 임부에게 좋은 음식과 아기를 위한 필요한 영양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하게 되니 가족들의 관심을 받으며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경험을 하였는데, 다문화 여성들은 임신으로 가족들이 기뻐해주며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으로 인정받음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Cunning et al., 2014; Nam & Oh, 2013; Oh, Park, Kim, & Lee, 2013)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힘을 얻고(Oh et al., 2013) 자녀라는 존재는 가족 내에서 정체감을 찾아 가족의 결속력을 강하게 해주며(Koo, 2007) 어머니됨의 영역은 낯선 이국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Choi, 2015)라고 하여 임신으로 인한 자녀 출산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주제인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위해 「한국문화 배움의 요구」, 「한국 임신부 따르고 싶음」, 「한국식 자녀 기르기 희망」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 원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한국음식 만들기를 희망하였고, 한국어로 된 출산교육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베트남어로 된 임신부 교육을 요구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베트남어로 된 산전관리나 교육은 이해할 수가 없어 자국어로 된 산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Oh et al., 2013)고 하였으므로 자국어로 된 산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 임신부가 먹는 좋은 음식과 임부관리법에 따라 임신을 유지하고 한국식 출산방법에 따라 출산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식 육아법에 따라 아이를 양육해야 함으로 한국식 자녀교육법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Oh et al., 2013), 자녀양육에 대해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졌다(Cunning et al., 2014; Nam & Oh, 2013)는 결과를 볼 때,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도 한국식의 자녀 양육법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으로 아기를 키워야 하므로 한국식 임신부 관리나 출산, 육아

등에 있어서 한국의 방법을 따르기를 희망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히 양육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주 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 주제로 [힘들지 않은 출산]을 경험하였으며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시 남편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의료인도 바디랭귀지를 통해 도와주어 힘이 됨을 경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진통이 있어도 남편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Oh et al., 2013)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Kim, 2009)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 자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두려움이 없었으며 남편이 옆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소통해주었고, 의료인도 바디랭귀지로 도와주어 출산하는데 힘을 얻었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로 [감당하기 힘든 산후여건]을 경험하였는데, 출산 후 바로 혼자 아기돌보기 및 가사일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껴 산후조리를 위해 아기돌보기 및 가사일의 도움과 베트남식으로 산후조리하기를 원하였다. 베트남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교육, 가사에서 남편의 참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기대(Choi, 2015; Kim, Kim, & Han, 2007)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양육이나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아 산후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문화 여성들은 산후조리를 하면서 머느리로서 노동 감당과 역할 수행을 요구받으며 분만 후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Jeong et al., 2009; Nam & Oh, 2013; Oh et al., 2013)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베트남식 산후조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Oh et al., 2013)와 같이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출산 후 베트남식 산후조리 및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아기 돌보기나 가사 일에 대한 도움인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주해온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을 교육 후 연계하면 베트남식 산후조리 및 가사 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및 연대도 가능하여 베트남 출산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확인하고자 포커스 그룹 방법을 이용한 질

적 연구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 분석을 통해 [타 문화 적응의 버거움], [임신의 힘겨움과 기쁨],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의 노력], [힘들지 않은 출산], [감당하기 힘든 산후 여건]의 5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는 한국음식과 한국어 교육 및 가족의 지지를 통한 한국문화적응이 첫째 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 자체를 위한 도움보다는 임신을 위한 정보와 산후조리를 위한 아기 돌보기나 가사도움이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나 정부차원의 지원보다는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 및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는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과 산후조리 위한 지원이 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간호실무 영역에서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적응, 산전교육 및 산후조리에 대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간호연구 영역에서 베트남 외에 다른 문화 출산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수행시 선행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간호교육 영역에서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 및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출산이주성과 타 문화 출산이주여성의 한국 문화적응에 관한 비교 고찰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베트남 출산이주여성의 산후조리에 관한 문헌고찰과 이를 통해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Cha, S. E., & Kim, D. S. (2008).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3), 131-157.
- Choi, D. H. (2015). A study on the meaning of "Becoming a mother" of Vietnamese migrant women. *Journal of Diaspora Studies*, 9(2), 12-23.
- Cunning, B. Y., Yu, K. S., & Kim, J. S. (2014). Pregnancy and postpartum experiences of immigrant in a Vietnam. *Family and Culture*, 26(2), 221-244.
- Jeong, G. H., Koh, H. J., Kim, K. S., Kim, S. H., Kim, J. H., Park, H.

- S., et al. (2009).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15(4), 261-269.
- Jeong, J. S. (2011). *Pregnancy, delivery and culture interg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Doctoral dissertation, Inge University, Busan.
- Kim H. R. (2009). *Maternal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marriage-based women immigrants in Korea and policy direc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55 pp. 50-64.
- Kim, D. S. (2008). Effects of foreign wife status and social capital on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3), 1-26.
- Kim, D. S. (2012). Spousal dissimilarity in age and education and marital stability among transnational couples in Korea: A test of 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1-30.
- Kim, H. R., Hwang, N. M., Jang, I. S., Yun, K. J., & Kang, B. J. (2008). *Reproductive health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policy challenger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ety Affairs.
- Kim, H. S. (2012). *Transnational family formation and transnational family ties: a case study of Vietnamese women in South Korea migrated through cross-border marri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J., Kim, H. J., Lee, K. J., & Lee, S. O. (2007). *Focus group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sa; 2000.
- Kim, Y. S., Kim, M. S., & Han, K. S. (2006). *The policy task for enhancing the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of cultural conflict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Seoul: Korea.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o, C. S. (2007).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319-359.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3r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Lim, H. S. (2011).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17(3), 243-255.
- Nam, B. H., & Oh, J. A. (2013). A study on the family relationship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Vietnamese women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period.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8(1), 131-154.
- Oh, E. J., Park, J. S., Kim, Y. K., & Lee, H. S. (2013). The meaning of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women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7(2), 256-269.
- Seol, D. H., Kim, Y. T., Kim, H. M., Y, H. S., Lee, H. K., Yim, K. T., et al.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tatistics Korea. (2015). *Marriage immigrant status*.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quick_02
- The Euro Journal. (2011). *OECA Korea, OECD countries among the highest growth rate of foreigners*. Retrieved June 12, 2016, from http://www.eknews.net/xen/kr_politics/116756
- Yang, S. E., & Lee, M. Y. (2011).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family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Island regions. *Education Culture Research*, 17(3), 251-284.